



결핵, 아직도 가슴뛰는 두 글자

글 박연숙(본지기자)

누군가 결핵 투병을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칭했다. 전염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속 시원히 털어놓지도 못하고, 6개월간 끊임없이 결핵약과 씨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약이나 적은가? 삼일치 감기약도 끝까지 복용하는 법이 거의 없는 기자의 입장에서 하루 세끼, 한움큼의 약을 6개월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또 약에 예민한 환자들은 결핵약

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실(失)이 있으면 득(得)도 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가족, 친구, 동병상련의 환우들, 그리고 정신적인 의지가 되었던 의료진들과의 관계는 다른 어떤 병의 그것보다 끈끈하다.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었던 힘든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보듬어준 고마운 사람들, 바로 결핵관리 현장의 요원들이다. 그래서일까? 결핵업무에 한번 발을 디딘 사람들은 업무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세계결핵의 날 제19회 복십자대상 봉사부문을 수상한 부산시 남구보건소 정인옥 간호사 역시 그런 이 중 하나다.

정인옥 간호사와 결핵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1981년,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가톨릭사회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부터다. 그 후 1988년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보건소 결핵실에서 근무해왔고, 지난 1995년부터는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에서 결핵지도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부산시 남구보건소로 자리를 옮겼다. 결핵업무를 해온지는 약 26년. 이와 비슷한 이력의 소유자는 많겠지만, 결핵에 대한 남다른 마음가짐이 아마도 복십자대상 수상을 가능케 한 것일 게다.

“신문기사에서 결핵의 ‘결’ 자만 발견해도 가슴이 뵈뵈다. 워낙 오랫동안 결핵 업무를 해오기도 했지만, 같은 보건소 내에서도 결핵담당 간호사들 만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일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결핵의 ‘결’ 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동공이 확대된다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를 지켜본 지인들은 유순하고 온화해 보이는 그이지만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열정이 넘친다고 이야기한다. 부산시청 보건위생과에서 결핵지도 간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그는 결핵협회에 수많은 사업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협회 부산지부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외국인 검진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또한 부산시청 관내 17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결핵관리 요원들의 보수교육을 담당했을 때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매년 열리는 전국 결핵관리 평가회의에서 수차례 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복십자대상 봉사부문 수상에 대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결핵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 최고의 영예인데, 민망할 따름입니다. 그냥 이 업무가 좋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어 즐겁게 일했을 뿐인데……. 하지만 집에 가서는 은근슬쩍 자랑도 합니다. ‘당신 아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요. 그런데 정말 고마운 것은 제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주신 상이라는 점이에요.’”

결핵협회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힘들기보다는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업무는 달라졌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노라고 말한다. ♣